

회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9월 후원미사는 18일, 10월 후원미사는 16일, 11월 후원미사는 20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7년 7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7,378,087	전월이월금	872,317
지 로	2,772,600	우리은행	4,351,740
국민은행	4,712,270	하나은행	1,156,130
조흥은행	110,020	신한은행	935,120
외환은행	447,610	제일은행	155,020
농 협	1,390,290	기업은행	880,080
우 체 국	40,010	지정기탁	490,00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7,0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1,3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5,00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	운영비 등	
지정기탁금	지정기탁	490,000	산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지출 총액		16,815,000	잔액(이월금)	563,087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7. 8 / 제14호

펴낸날 2017. 8. 21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즐거움 중에도 주님을 섬기리

후원자님과 가정에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 비해 날씨와 세상이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날씨는 국지성으로 바뀌어 각 지역마다 크게 다르고 세상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게 많은 정보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옛날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너무도 쉽게 정보와 지식을 얻으면서 안정감 보다는 불안정감을 더 느끼는 듯합니다.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느님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세상에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7월과 8월은 여느 달보다 여름 행사로 분주하였습니다. 이주여성쉼터의 힐링 캠프를 시작으로 이주사목위원회 직원들의 직원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민족공동체의 여름 물놀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소속의 수녀님들의 연수와 남미공동체와 마고네공부방, 중국공동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놀이가 남아있습니다. 날씨도 후덥지근해서 움직이기도 싫은데 모두가 여름에 달려들 어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주민을 위한 일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머리와 가슴을 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나를 열심히 사목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그리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저의 삶에 대하여 비판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어 버릴 때, 무기력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접할 때 등, 무기력이 몰려오면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면서 나오는 저의 답은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직도 나를 지키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하는 작위적인 저의 반성이 저를 더 무겁게 합니다. 날씨 탓일까요? 날씨가 의욕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면 좋겠습니다.

제 사무실에 지리산 노고단에서 바라본 일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주님께서 친히 네 앞에 서서 가시고,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버려두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신명기 31,8)라는 성서구절을 바라보며 계속 묵상합니다. 자꾸만 무기력한 저를 보면서 이젠 그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밀려들 때 생각합니다. '자유를 찾아 하느님 아버지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느님의 약속이 지금 이 시대의 이주민들과 이주민과 함께 하려는 저희들에게 맞닥뜨린 시련들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고쳐 잡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은 숨을 쉬고 의지를 내어 봅니다. 마치 더위를 이기려 더위 속으로 달려 들어가듯이 시련을 이겨내고자 시련 속으로 뛰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에페소 3,17)의 사도 바오로의 기원으로 후원자님에게 아침 인사를 대신합니다. 마지막 더위 잘 이겨내세요.
사랑합니다. ♡♡♡

2017년 8월의 더위 한가운데에서
천주교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 평 안 마르코 신부

공동체 소식

여름캠프 소식*

베트남공동체는 7월 22~23일에 180명이 강원도 양양 주문진성당으로, 필리핀공동체는 7월 29~30일에 70여 명이 강원도 고성으로, 몽골공동체는 8월 5~6일에 26명이 강원도 양양으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캠프와 같은 개인의 여가시간이 없는 이들에게 이번 캠프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 타국에서 일하며 쌓인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풀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기쁨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공동체



몽골공동체



필리핀공동체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소방서 견학



▲ 어린이집마당 물놀이



▲ 어린이집마당 물놀이

남미공동체 페루 독립기념일 행사*

페루의 가장 큰 기념일로 독립기념일을 꼽습니다. 1532년 스페인에게 정복된 후 300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아오다 1821년 7월 28일 완전한 독립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페루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된 지 196주년 되는 해입니다. 페루는 독립기념일을 맞아 10일전부터 도시 곳곳에서 아이들부터 어른, 노인들까지 형형색색의 의상을 입고 다 같이 춤을 추며 행진을 하며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의 중심지인 산마르틴 광장에서 시작해 아르마스 광장까지 공연이 끝없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각학교마다 독립기념일을 위한 에피소드를 만들어 분장하고 길거리 공연을 펼치는 한편 어른들도 거대한 모자와 익살스러운 화장으로 무장하고 행진을 합니다.

페루의 독립을 기념하며 남미공동체에서는 지난 7월 23일 일요일에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미사와 독립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100여 명의 남미 가족들이 참석하여 독립을 기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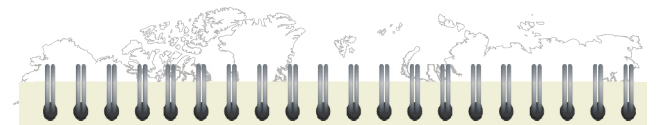


문화알림

ABOUT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 수도 / 타슈켄트
- 종교 / 이슬람교 88%(수니파 70%), 러시아 정교 9%, 기타 3%
- 기후 / 고온건조한 사막성 기후
- 인구 / 약 2,947만명(세계 44위)
- 기념일

- 1월 신년(1일)
- 2월 크르본하이트(11일)¹⁾
- 3월 여성의 날(8일)²⁾
나브루즈(21일)³⁾
- 5월 노동절(1일)
승전기념일(9일)⁴⁾
- 9월 독립기념일(1일)
- 10월 스승의 날(1일)
- 12월 제헌절(8일)⁵⁾



1) 쿠르본 하이트(2월 11일, 매년 2회(대략 봄, 가을), 매년변동)
'쿠르본'이라는 말은 '제물'을, '하이트'는 이슬람 전통 명절을 의미한다. 이 이슬람교의 금식월인 라마단이 끝나는 날로부터 계산해서 70일째 되는 날이 "희생제일"로 쿠르본 하이트를 지낸다. 이 날에는 이른 아침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한 후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 반드시 양이나 닭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희생제를 하고, 잡은 양이나 닭의 일부는 자기 가족과 친척들이 먹고 나머지는 가난한 과부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그래서 쿠르본 하이트에는 대부분의 집에서 양고기나 닭고기로 음식을 많이 해두고 친척들과 이웃을 불러 대접을 한다.

2) 여성의 날(3월 8일)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과거보다는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 일부 원주민들에게는 일부다처제라는 문화가 남아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여자들은 이슬람 문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이며 보수적이고 다산과 순종을 미덕으로 생각한다. 이런 여성들에게 여성의 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다. 남성들은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여동생과 누나 또는 여자친구에게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선물을 하고 여성들끼리도 서로 축하해주기도 한다. 지역에서도 축하 공연을 하며 여성의 위대함을 찬양하거나 다가오는 봄을 축하하는 춤과 노래 등을 볼 수 있다.

3) 나브루즈(3월 21일)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설날로서, 봄이 오는 것을 축하하는 명절의 의미를 갖고 있다. 소나무에 소원을 빌기도 하고 '수말락'라는 요리를 해 먹는다. 수말락은 보리를 으개어 나오는 즙을 끓여 밀가루, 호두 등을 넣어서 걸쭉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나라 조청과 비슷하다. 주로 빵을 찍어 먹는다. 나브루즈의 상차림에는 의미가 있는 7가지의 물건을 올려야 한다. '부활'을 뜻하는 포도주, '순수함'의 우유, '기쁨'을 상징하는 과자, '풍족함'의 설탕, '휴식'을 상징하는 주스, '빛'을 나타내는 양초,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빛이다.

4) 승전기념일(5월 9일)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약 5년 동안의 참혹한 전쟁이 승리로 끝난 날을 기념하는 날로 독일 나치군과 소련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을 "대조국 전쟁"이라고 불린다. 전쟁으로 인해 680만 명의 소련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고, 440만 명의 군사들이 실종되었다. 또한 수많은 시민들이 추위와 기아, 폭격 등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역사상 유래 없는 참혹한 전쟁의 승리는 국민들의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날이다. 또한 이 승리는 소련의 세계 2차 대전에서의 승리도 포함하고 있다.

5) 제헌절(12월 8일)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헌법을 제정,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매년 중요한 3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음 해의 슬로건을 발표하는 것이다. 2001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다음해의 슬로건을 발표하는데 발표되고 나면 우즈베키스탄 전국 각지에 그 슬로건이 쓰여진 입간판과 포스터들이 붙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그 슬로건과 관련한 많은 행사가 열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교사, 경찰, 군인 등에 포상을 하는 것이다. 매년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교사, 경찰, 군인 등을 추천받아서 뽑은 후, '헌법의 날' 행사장에 초청을 해서 그 분들을 격려하며 훈장을 수여하고, 포상을 한다. 세 번째는 사면이다. 한국에도 광복절에 죄수들을 사면하는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제헌절에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나 모범수들을 사면한다. '독립기념일'에 죄수를 사면하기도 하지만 그 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에, 헌법의 날에는 반드시 죄수 사면 행사가 있다.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이주민 통계 *출처: 2016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인 총 597,783명 중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는 32,772명(남자 24,685명, 여자 8,087명)으로 5.5%를 차지하며,

국민의 배우자 체류 외국인인 총 152,374명 중

우즈베키스탄 출신은 1,566명(남자 74명, 여자 1,492명)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